"종단 안정과 화합 최우선 과제" "최소한의 종법 절차거쳐 사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문답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단혼란으로 불자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계질서의 확립을 강조한 정대스님은 또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교구본사 주지와 중진스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단운영의 폭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면의 방식과 범위, 월하스님을 만날 계획은.

▲월하스님은 내가 건당한 스승이다. 비구계도 그 어른에게 받았다. 총무원장이 된 지금 개인적으로라도 인사하러 갈 것이다.

사면할 뜻이 없으면 총무원장에 취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단 재산을 팔아먹었거나 반국가적인 행위에 의해 징계된 사람들을 지칭한 사면이 아니다. 의견과 이해가 달랐거나 총무원장 직함을 놓고 벌어진 시비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을 묶어두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도 온당치 않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화합해야 한다.

-사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올해 안에 가능한가.

▲종법에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회없는 사면이 되기 위해 종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전과 같이 종단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자신없는 집행부나 종회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나는 자신있다. 정화회의쪽에서도 올해 안에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의지가 크니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와 만난 적이 있나.

▲월탄스님은 나와는 동지적인 입장이나, 일(사면)이 되기도 전에 깨질까봐 만나지 않았다. 사면 이후 공직을 맡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 필요없다.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사면이다. 그냥 푸는 것이다.

정화개혁회의에 관여된 스님들에 대한 사면은 내가 가장 적임자다. 내가 못하면 다음 총무원장이 하기도 어렵다. 정화회의에서도 종단에 참여해야 한다.

-총무원 청사, 승가대 김포학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는 조감도만 나온 단계다. 사실상 무(無)이다.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입주는 청사 건립과 연계할 생각이다. 김포학사 이전 후 운영에 대해 걱정하는데, 1명의 훌륭한 스님이 나와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조계사 철문을 철거할 용의는 없나. 건강은 어떤가.

▲건강은 보시는대로다. 내일 죽을는지, 20년 후에 죽을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대답은 건강하다고 해야 않겠나. 철조망도 치우고 일주문도 열었다. 해탈문도 곧 열 것이다. 철문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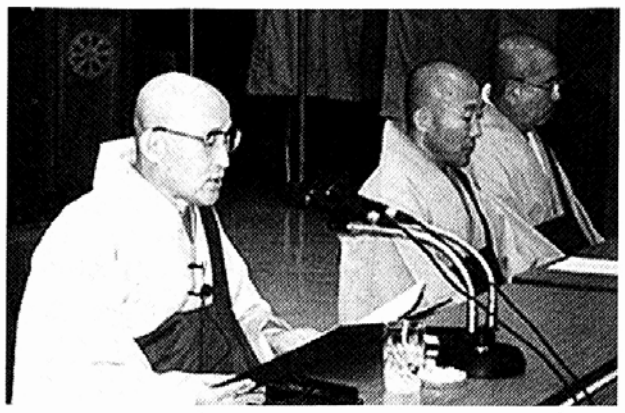
-원만한 종회운영을 위한 방안은.

▲종회가 계속 유회하면 또 종회무용론이 나온다. 뜻있는 종회의원들과 모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또 분열을 부추기는 총무원장선거법을 바꾸도록 하겠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과는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지역에 옳은 사업을 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불자라고 해서 도와줘서는 안된다. 선거에는 말려들지 않으려 한다. 백해무익하다. 스님들에게 표를 구하는 정치인은 각성해야 한다. 돈 있으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말하고 싶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월 24일 취임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안정 ·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계율은 바꿀 수 없는 것"

조계종 새 전계대화상 범룡스님

11월 24일 종정 혜암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직후 주석하고 있는 동화사 비로암에서 기자를 만난 범룡스님은 무엇보다 계율의 수지를 강조했다.

스님은 "참선을 배우러오는 자들에게 5계의 수지 여부를 먼저 묻는 것은 참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율이 청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불자들은 늘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종단사태와 관련, "승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가 가진 업연의 소치 때문"이라며 "부처님께서도 '중생이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를 범했다할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제될 수가 있다"면서 참회정진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또한 계율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서는 "미륵부처님이 와서 고치면 모를까 아무나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스님은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육체는 생노병사하며 우주는 성주괴공한다"면서 "깨달음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꿈속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경의 한구절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곧 부처를 본다)'를 언급한 뒤 '약견제상실상(實相)이면 즉견여래'라는 스님의 견해를 피력했다.

하루 3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는 스님은 "결제시기에 돌아다니는 스님은 돌팔이중"이라며 정진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인간수명이 원래 120세인데 과음하고 공상하며 색을 밝히는 까닭에 제명대로 살지 못한다"면서 일반불자들도 절제하는 생활태도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범룡스님은 끝으로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한 뒤 성인의 경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함부로 막행막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914년 평남 맹산에서 출생한 범룡스님은 41년 상원사에서 한암스님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유점사 승가대 대교과를 졸업했다. 48년 상원사 승려수련소 수료 후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동화사 주지,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화사 비로암에 주석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전계대화상이란 스님배출 戒壇관장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은 계단의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의 추천에 의해 종정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종정(宗正)이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녔다면, 전계대화상은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을 관장한다.

계단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계단위원회가 있는데, 전계대화상은 계단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계단의 주요 구성요건인 3사(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증계아사리)와 7증사(證師)를 위촉한다.

조계종은 지난 81년 전계의 엄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단일계단을 마련했으며, 출가자는 단일계단을 통해야 승려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범룡스님은 자운, 고암, 석주, 일타, 청하스님의 뒤를 이어 6대 전계대화상에 위촉됐다. 전계대화상은 법랍 45년, 세수 65세 이상이 되어야 위촉 자격이 부여된다.

"범종단 군불교위원회 설치해야"

군승단 창설 31주년 기념 공청회

군승단(단장 김말환)은 11월 2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창설 3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군불교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장성화 법사(군승단 사무총장)는 '군포교 비전 21'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군불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승단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군불교를 전담하는 종단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불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군포교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군포교 비전 21'의 성공여부는 종단과 군승, 불자들의 한마음이 될 때만 가능한 어려운 숙제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군불교 전담기구 설치

군불교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로서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가칭)군불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군불교위원회의 대표는 현역이 아닌 비구승으로 하되, 군승총회에서 선출하여 포교원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 군불교위원회의 예산은 각 종단의 분담금과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법당 분담금과 후원금, 사업이익금 등을 운영한다.

■각종단 군승 파송

군승 부족 현상과 군불교의 새로운 자극과 충전을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와 종단간의 동의에 따라 (가칭)군불교위원회 형태의 기구에 파송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군불교위원회가 군승 후보생 및 요원을 각 종단에서 선발, 파송받아 교육 후 군에 파송하고, 군승의 신상관리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종단이 다른 만큼 통일된 의식과 제도를 교육하고 시행해야 한다.

■종합적 군불교 시스템 수립

△군포교 정책의 부재=대상별 부대별 포교의 방향, 중점 포교방안 등 종단 차원의 지속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법회 지원의 어려움=군승의 효율적 인사 배치, 재가 포교사 활용, 지역 군종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간부 불자의 관리 부재=간부 신도카드의 통일관리, 전군불교장교회의 결성을 추진한다. 수계불자 명단의 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전역후 종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야 한다. △예비역법사단 군불교진흥회 예비역장성불자회 불교어머니회 등 군불교 후원단체의 등록 및 관리제도의 시행으로 군포교 지원의 체계화를 유도한다. △군불교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군불교 예산의 확보 및 시행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군법당 표준기준 등을 담은 군법당 건립 규정을 시행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연대급 이하 법당에 군승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군승 교육 및 관리

△군승 후보생 및 요원 교육의 부재=후보생 및 요원 선발 규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해 시행해야 한다. △군과 승의 이중적 구조에 의한 관리부재=독신조항 등에 대한 장기적 연구, 군승 관리 규정 및 활동 지침 시행(법당 월말보고서, 감사제도, 상벌권 확립 등)이 필요하다. △군승 전역후의 문제=종단 복귀, 복지기관 수용 등 수용방안, 상임법사 제도(군법당, 군법회 지원) 시행, 예비역 군승 관리 규정 마련 등이 연구돼야 한다.

▲군불교 방법론 및 군법당 관리방안 개발

△법회의 정체=책자와 교육기관 수계를 통한 교육, 출석제도 연구, 설법 및 포교방법 경연대회를 열어 다양한 법회의식을 연구하고 지원한다. △법당 재정 자립의 부재=불전 보시에 대한 신도교육 실시, 법당 재정 운영 규정 시행과 감독 강화, 합장주 쵸코파이 등 공동구입 · 분배를 시행한다. △불자 신도조직의 정체=전군장교불자회, 하사관불자회 등을 조직하고 군실정에 맞는 통일된 신도 조직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불자교육의 전무='통일' 주제의 설법 등 군 특성에 맞는 단계별 교육방안을 추진하고 교육 책자 등을 제작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목어 오직 진실만이…

한때 이 나라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모 인사가 아내와 함께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히면서 눈물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의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때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국회청문회에서조차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을 들먹이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전력이 있으니 그보다 더한 일인들 하지 못할까닭이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불신은 저들 자신이 뿌려 놓은 인과응보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원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연정희씨의 남편은 문건의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니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처럼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한때나마 이 나라 검찰총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외혹은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망령처럼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오직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실처럼 확실한 의지처는 없다. 진실을 등진 사람은 아무리 보리수 아래 앉아 있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자타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설파했다. 진실은 수행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진실을 등진 권력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고 끝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국민이 위대한 것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은폐하려 할 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정의감이 그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라 본다.

설령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정의감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일등국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진실규명 여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명암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성열(강남포교원장 · 본지논설위원)